

6월 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전약후강` .. 다우 지수 0.02%↑	<p>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오는 9월까지 미국의 리세션이 종료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이 호재로 작용.</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36포인트(0.02%) 오른 8,764.49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02포인트(0.38%) 하락한 1,842.4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95포인트(0.1%) 소폭 떨어진 939.14를 각각 기록했다.</p> <p>뉴욕증시는 약세로 출발해 장중 약세를 면치 못했음. 그동안 많이 오르게 따른 가격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투자심리를 압박했음. 그러나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은 미국의 19개 대형 은행중 9곳이 구제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것이란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장중 반등세를 나타내었고, 특히 크루그먼 교수가 미국의 리세션이 올 여름께 끝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이 투자심리를 크게 자극했음. 이에 따라 뉴욕증시는 장마감 30분을 앞두고 낙폭을 크게 줄이려 반등을 시도, 다우 지수는 강보합세로 거래를 마쳤음.</p>
폴 크루그먼 교수 "미 리세션 올 여름에 끝날 수도"	<p>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날 영국 런던 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강연에서 "경제여건 악화가 점점 느려지고 있고, 안정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몇가지 이유도 있다"고 밝혔음. 그는 특히 "미국의 리세션이 올 여름께 공식적으로 끝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미국의 경제가 올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감을 크게 자극했음. 크루그먼 교수는 미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조치를 통해 은행들에게 대출 및 자금을 지원해 온 노력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줬고, 시장의 많은 스프레드들이 축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p>
국제유가 이틀째 약세	<p>국제유가가 미 달러화 반등 영향으로 이틀째 약세를 이어가며 배럴당 68달러로 마감했음. 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35센트(0.51%) 하락한 68.09달러로 장을 마쳤음. 최근 국제유가는 경기회복 기대감과 더불어 달러화 약세에 따른 헤지성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였음.</p>
IMF 총재 "세계경제 회복 후 인플레이 위험"	<p>스트라우스-칸 총재는 8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회의를 갖고 "경기후퇴 끝에 찾아올 급격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실제 리스크(real risk)"라며 "경제위기가 끝난 뒤 세계 경제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p>

제목	주요 내용
美-러, 이번에는 '곡물' 패권싸움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과 함께 `흑해 곡물 블록`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수출기구(OPEC) 형태의 곡물 카르텔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엘레나 스크리니크 러시아 농업장관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과 공동으로 곡물 재고를 조절하고, 철도와 항구 수송능력을 개발할 것"이라며 "흑해 연안의 곡물 수출 국가들과 힘을 모으면 세계 곡물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고 투기 수요에 대한 의존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최근 금리상승 수급 탓 아니다"	한국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수급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경제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다는 심리가 갑작스럽게 부각된 것이 금리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미국 시장에서 금리인상설이 제기되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1분기 가계 보건지출 사상 최대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2인 이상 가계의 월평균 보건 지출액은 13만5,000원으로, 분기 기준 처음으로 13만 원을 넘었음. 국제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라 올해 1분기 가계의 명목소득이 작년 동기보다 0.8% 증가하는데 그치고 소비 지출은 3.5% 줄어든 상황에서 보건 지출은 오히려 5.0% 늘어났음.
국내 자전거中企, 1조원 특허 1건 승소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엠비아이는 지난 4월 6일 시마노사가 일본 특허청에 낸 자전거 변속기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효 심판 청구 심결에서 승소. 일본 특허청은 심결 당시 피해 배상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소송비 전액을 원고인 시마노사에 부담시키는 등 전적으로 엠비아이측 손을 들어줬다고 엠비아이측은 전했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